행정 명령

**귀환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위한
뉴욕주 협의회 지속**

뉴욕주 주민 가운데 수천명이 지난 수십년간 아프간 항구적 자유 작전과 이라크 자유수호 작전을 포함하는 무력 충돌에 참가한 참전용사들이다;

국가방위군과 예비군을 포함, 현재 배치되어 있는 많은 장병들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으로부터 귀환했거나 귀환할 것이다;

무력전에 현역으로 참가한 참전용사들 중 상당수가 신체적 장애, 질병, 정신적 장애 및/또는 충격적인 뇌 손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포함하는 약물 중독 장애, 또는 그러한 장애의 가능성을 안고 귀향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참전용사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국 및 주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는 귀환 참전용사들의 취업 기회에 나쁜 영향을 준 바 있다;

귀환하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이 분명히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전용사들, 특히 여러가지의 도전을 경험한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을 돕거나 도울 수 있게 된 연방정부, 주정부 및 기타 자금지원 및 서비스 기관이 가능한 한 훌륭하게 조직되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있게 사용되도록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이러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해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귀환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의 희생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귀환 참전용사들이 고향의 커뮤니티와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돕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현역으로부터 귀환하는 참전용사들이 다양한 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훈련 및 경험을 지니고 돌아오며, 이러한 기술, 훈련 및 경험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있을 경우 이를 식별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다;

귀환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위한 뉴욕주 협의회는 위에 설명한 다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11월 11일 David Paterson 주지사가 발행한 행정명령 제12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 충돌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귀환 참전용사 수의 증가로 이러한 협의회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주 정부나 지방 정부 취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이 활기를 찾은 회원들과 업데이트된 임무,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군복무중 획득한 기술, 훈련 및 경험을 인정받도록 하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 즉각적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뉴욕 주지사인 나, ANDREW M. CUOMO는 이에 뉴욕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권능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바이다.

1. T귀환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위한 뉴욕주 협의회 (협의회)가 지속되며, 그 회원 및 임무가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확대된다.
2. 협의회 회원은 재향군인과 과장, 알코올 중독 및 약물중독국 국장, 보건국 국장, 정신건강국 국장, 군사과의 부관참모, 노동국 국장, 주택 및 커뮤니티 재개발국 국장, 뉴욕주 경제개발국 국장, 주 교육국 국장, 고등교육 서비스 공사 사장, 그리고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 및, 주지사가 임명하는 추가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추가회원에는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참전용사나 그 가족, 참전용사들에게 행동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한 명, 참전용사들에게 약물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참전용사 문제 전문 학자 한 명이 포함된다. 재향군인과 과장 또는 그자 지명하는 사람이 협의회 의장이 된다.
3. 협의회 회원 과반수가 의사 정족수를 구성하며 협의회 모든 제안에는 협의회 총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협의회 회원은 누구도 공직이나 취업에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되며 협의회에 임명됨으로 인해 그 직을 박탈당해서도 안된다. 협의회 회원은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으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실제 경비 및 필요 경비는 허용된다. 모든 협의회 회원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봉사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주지사가 충원한다. 주지사는 필요에 따라 협의회에 투표권이 있는 회원과 투표권이 없는 회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다음을 성취하기 위한 주 전략의 조화를 보조하기 위한 제안을 할 책임이 있다;
 - a. 귀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필요 및 그들이 군복무의 결과로 커뮤니티에 제공해준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한다;
 - b.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군복무에서 얻은 육체 및 정신적 건강과 약물중독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도록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 c.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올바르게 식별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한다;
 - d.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장애, 질병, 정신질환 및/또는 약물중독 등을 알아내어 즉각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방해되는 장벽을 제거한다;
 - e. 서비스를 식별하고 장벽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참전용사들, 특히 하나 이상의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f. 피어 투 피어 시스템을 포함, 실행 가능성이 큰 추천망 개발을 장려한다;
 - g. 기금 및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 자원을 포함, 귀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복무중 발생한 신체 장애, 질병, 정신질환 및/또는 약물중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최대화 한다;
 - h. 귀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복무중 발생한 신체 장애, 질병, 정신질환 및/또는 약물중독을 치료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조직하여 효율성과 효과를 최대화한다;
 - i. 귀환 참전용사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주택을 물색하고 주택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j. 군대에서의 전문성이 민간인 직업에서 인정받도록 도와 참전용사들이 군복무중 획득한 기술, 교육, 훈련, 경험 및 자격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사용되도록 한다.

k. 귀환 참전용사들에게 장학금 기회 및 학자금 용자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학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1. 기타 협의회 의장, 또는 주지사나 그의 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들.

6. 의장은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복리에 관한 광범위한 관심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그들의 경험 및 전문성으로 협의회를 도울 수 있는, 자문기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자문기구의 회원은 뉴욕주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그 문화에 능숙해야 한다.

7. 협의회는 주지사나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때때로 주지사에게 그 활동, 발견한 사실, 및 본 명령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뉴욕주의 모든 기관 및 당국은 협의회에 협조해야 하며 협의회가 본 행정명령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9. 뉴욕주의 모든 기관 및 당국은 이에 민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로를 검토하고, 군사 훈련과 경험이 가산된 가산된 자격을 인정해주기 위한 면허제도의 검토 및 학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 정부가 참전용사들이 군복무중 습득한 기술, 교육, 훈련, 경험 및 자격을 보다 잘 인정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명한다.

10. 본 행정 명령은 Paterson 주지사가 2008년 11월 11일 발표한 행정명령 제 12호를 폐지하고 이로써 대신한다.

이천일십일년 십일월 십일 알바니 시에서 자필로

작성하고 주의 인장으로 날인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